

전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돌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17일 교부세 축소 따른 효율적 집행 초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올해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 활동을 들어간다.

지난 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송영진 위원장 등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올해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펼친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에 대

한 심사는 오는 17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올해 2회 추경은 2조7,114억6,600여만원(1회 추경 대비 128억4,700여만원 증가), 내년 본예산은 2조6,920억3,600여만원(올해 본예산 대비 1,202억원 증가)이다.

이번 심사는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추도록 보인다.

특히 5년 이상 연속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평가 하위 30%, 부정행위 등이

지적된 단체에 대한 예산에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사업 중에서도 선심성으로 분류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이 예상된다.

반면, 관행적으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짊어 누르거나 끼워넣는 식의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

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덕·김동원·이남숙·김성규·김세원·김정명·온혜정·이국·이성국·장병익·최명권·최서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영진 예결위원장은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불필요한 예산으로 낭비 요인이 없는지 확인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을 대표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전주시설공단 서명대 시설본부장(오른쪽)

전주시설공단, 행안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서 나눔 경영 통한 지역 사회 공로 인정

전주시실업공단(이사장 이연상)이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단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일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2024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나눔 경영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자원봉사에 헌신적인 개인, 단체, 기업에 주는 상으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매년 자원봉사의 날을 기념해 진행되며,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공단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역과 함께하며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결손가정 어린이 '소인 들어주기' 프로젝트 △급이 끝잔폐기 등 기부금 모금 △중증장애인을 위한 나눔이 행사 등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으로 고객에게 나눔 사랑을 소외계층에게 돌려주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2년간 이어져 온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개선, 실내 조명시설 교체, 담장 보수 등을 기술직 직원들이 주축이 돼 재능기부 형식으로 추진 중이다.

결손가정 어린이 '소인 들어주기' 프로젝트는 결손가정 어린이들에게 소인 선물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향상성을 돕고자 기획됐다. 3년간 총 267명 어린이들에게 600만 원 상당의 선물들이 건네졌다.

이연상 이사장은 "사회공헌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교육 실시

총 8회 걸쳐 313개 공동주택
관리소장·직원 등 700명 대상

전주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총 8회에 걸쳐 충전주거역 313개 공동주택 전기자 충전 구역 관리주체인 관리소장과 직원 등 700명 대상으로 불법주차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주차 문제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과 신고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 및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충전 구역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 및 공정한 과태료 여부를 위해 과태료 법규와 예외 규정, 질의응답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단속 대상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사례 유형 ▲충전시설



전주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총 8회에 걸쳐 전주시역 313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 관리주체인 관리소장과 직원 등 700명 대상으로 불법주차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의무 설치 유예 안내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및 질의응답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 아파트단지 내에 충전 구역 수량

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등록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과하는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 가능"이라고 표시한 구역에 한해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날 마지막 교육에 참여한 한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친환경자동차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불법행위 및 과태료부과 예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으로 입주민들 사이에 충전 구역 주차 문제로 갈등 발생 시 주민들을 이해시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기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홍보 및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원광대 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맞손'

전주시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전주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기로 했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지난 6일 원광대학교 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단장 강요하)과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이 전주시평생학습관장과 김정배 원광대 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부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컬처 콘텐츠 확산과 인문학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글로벌 K-컬처 콘텐츠 확산 및 교과목·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협력 △전주지역 평생학습 진흥과 인문학의 발전 등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 추진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내년부터 시민과 학생들이 서로 협업체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대학
이 보유한 우수한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와 인문학이 결합된 새로운

인문융합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전북대병원,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발표한 '제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승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심평원은 우울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 및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 환자를 진료한 전국 41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을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을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환유율에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총 6개 평가항목에서, 전체 평균 47점을 크게 웃도는 종합점수 96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전복대병원이 우울증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과 전문성을 입증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욕기 기자**

<<전기,통신,소방공사 시공전문업체>>



대표이사 김성희

ПАНО
ENGINEERING

|주|나노 엔지니어링
WWW.NANOENG.CO.KR

우리는, 최고의 기술력과 자긍심으로 고객의 자산가치를 높인다
TEL : (063)253-6846~7 FAX : (063)253-6849